

##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자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WTO 체제가 출범한 지 벌써 한 해가 다 되고 있다. 처음 출범때는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했으나, 이제는 WTO 체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피부로 느끼게 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국정지표가 세계화로 변하고, 국내 체제가 바뀌기도 전에 세계화의 요구를 강하게 받게 되었다. 지난해 이 땅의 많은 농민들이 UR협상 반대와 쌀 수입 반대를 위한 대규모 농민대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다. 쌀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화요, 정신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기 때문에 92년 대선때 후보들이 “쌀만은 한톨도 수입하지 않겠다”,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공약들을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분들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공약을 한 것인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공약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금년에도 쌀 문제는 우리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며, 우리의 문화이며, 정신이라는 데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보내면서 말도 많았고, 이제는 우리가 쌀이 부족해서 쌀을 수입해야 되고 쌀 자급은 이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농민들의 그 극렬한 절규가 쌀을

지키기 위해서 농민들은 목소리 높여 외쳤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가고 있다.

UR협상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이 축산분야라고 축산농민들은 생각한다. 쌀을 지키기 위해서 축산 분야의 양보를 이해하려던 농가들도 쌀마저 강제적인 수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의 잘못으로 자급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정부의 가격지지 정책으로 그간 안정되었던 낙농산업이 고름우유 공방에 이어 항생·항균물질 잔류 발표로 소비가 급감하고 있어 낙농산업의 위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낙농진흥법은 낙농가들의 의견 수렴이 하나로 되지 못해 몇 해째 잠들고 있는 형편이다.

쇠고기의 경우에도 SBS도입 물량이 증가되면서 갈비 등 우리가 선호하는 쇠고기 부위 가격을 폭등시키는 등 한국인의 위력을 국제무대에서 맘껏 발휘하고 있으며, 자급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아직은 국내 한우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큰 목소리는 없으나, 이미 녹기 시작한 얼음판을 걷는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양돈의 경우 지난해 폭염으로 수태율이 떨어져

“고름우유” 파동에서  
 본 것과 같이 세계화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축산물의 위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특히 양돈의 경우에도 분뇨처리와  
 함께 돼지고기내 유해물질 잔류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TV, 주요 일간지에서 이미 오랜 기간  
 기획기사로 다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먹거리의 안전성에  
 민감한 반응과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의 격감으로 상반기에는 비교적 높은 값이 형성되었으나, 예상대로 하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해서 연일 마스크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특히 오제스키의 발병 확대와 호흡기 질환은 생산비를 높이는 데 주역을 하고 있다.

양계의 경우도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양계, 양돈 등 전적으로 배합사료에 의존하는 중소가축의 경우에는 금년에 두차례 걸쳐 약 13% 오른 사료값으로 고통은 두 배로 증가하였다.

“고름우유” 파동에서 본 것과 같이 세계화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축산물이 위생적으로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양돈의 경우에 분뇨처리와 함께 돼지고기내 유해물질 잔류문제의 벽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화는 축산물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이 이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축산물이 국제규격에 맞도록 생산하고, 높아지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지금까지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돼지값이 상당히 오랫동안 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분뇨처리와 함께 돼지고기에 유해물질 잔류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TV, 주요 일간지에서 이미 오랜 기간 기획기사로 다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먹거리의 안전성에 민감한 반응과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새해에는 사료가격의 또 한번의 인상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힘을 기르는 일이며 힘은 재력과 조직된 숫자로 표시되기 마련이다.

많은 선진국이 힘을 기르고 모으는 일을 자조금제도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의 실시없이 양돈산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과욕을 버리고 조직을 강화, 정비해서 자조금제도를 도입해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고, 업계의 문제들을 조사, 해결해 나가면 힘은 들지만 보람있고 오히려 안정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새해에는 금년에 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금년에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길이 불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